

청년(15~29세) 실업자 구직경로 변화

- 최근 들어 청년 실업자의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.
 -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를 이용하여 청년 실업자의 구직경로¹⁾를 분석해 본 결과,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이 2008년 상반기 51천 명(15.8%)에서 2016년 상반기 214천 명(44.7%)으로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크게 증가함.²⁾³⁾
 -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은 2008년 상반기 32천 명(9.9%)에서 2016년 상반기 120천 명(25.0%),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은 같은 기간 중 19천 명(5.9%)에서 94천 명(19.7%)으로 증가하여 다수의 청년 실업자가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구직의 경로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그에 반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구직의 경우 2008년 상반기 58.4%로 청년 실업자 10명 중 약 6명이 이용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 40.9%로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음.
-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으로부터 수혜 경험이 있는 실업자들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임(그림 1 참조).
 - 공공 직업알선기관의 경우 2011년까지 60대 이상 노년층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구성비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상반기 공공 직업알선기관 전체 수혜자의 46.8%가량이 청년층으로 나타남.
 - 민간 직업알선기관의 경우 분석기간 중 꾸준히 청년층의 참여가 증가하여 2016년 상반기 현재 민간 직업알선기관 전체 수혜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50.8%에 달함.

- 1) 구직경로는 공공 직업알선, 민간 직업알선, 대중매체, 학교 및 학원 추천, 친척 및 친지,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2) 타 연령층에서도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청년층(15~29세)의 증가폭이 가장 큼.
- 3) 실업자의 구직경로에 관한 설문구조가 변화한 2008년 이전에도 공공·민간 직업알선에 의한 구직은 구성비의 합이 5% 미만으로 다른 구직경로에 비해 그 비중이 미미하였음.

- 연령 측면에서의 상대적 비교에서도 청년 실업자가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구직의 경로로 선택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, 그에 따라 직업알선의 수혜 대상이 되는 주요 연령집단이 점차 청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됨.

〈표 1〉 각 연도 상반기 청년(15~29세) 실업자 구직경로 현황

(단위 : 천 명, %)

| | 공공 직업 알선기관 ⁴⁾ | 민간 직업 알선기관 ⁵⁾ | 대중매체 | 학교·학원 | 친척·친구 | 기타 | 전체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8 | 32 (9.9) | 19 (5.9) | 191 (58.4) | 22 (6.8) | 57 (17.4) | 5 (1.7) | 328 (100.0) |
| 2009 | 39 (10.9) | 19 (5.4) | 229 (63.8) | 15 (4.2) | 53 (14.8) | 3 (1.0) | 359 (100.0) |
| 2010 | 39 (10.5) | 31 (8.3) | 226 (61.2) | 17 (4.6) | 53 (14.2) | 4 (1.2) | 370 (100.0) |
| 2011 | 39 (11.0) | 41 (11.8) | 208 (59.0) | 17 (4.9) | 42 (12.1) | 4 (1.2) | 352 (100.0) |
| 2012 | 49 (14.4) | 40 (11.6) | 188 (54.8) | 21 (6.2) | 38 (11.2) | 6 (1.9) | 343 (100.0) |
| 2013 | 51 (15.2) | 45 (13.6) | 189 (56.7) | 16 (4.7) | 30 (9.0) | 3 (0.8) | 334 (100.0) |
| 2014 | 71 (17.3) | 67 (16.3) | 220 (53.8) | 16 (3.8) | 34 (8.2) | 2 (0.6) | 409 (100.0) |
| 2015 | 98 (22.4) | 91 (20.7) | 198 (45.1) | 16 (3.7) | 34 (7.6) | 2 (0.5) | 439 (100.0) |
| 2016 | 120 (25.0) | 94 (19.7) | 196 (40.9) | 18 (3.8) | 49 (10.2) | 2 (0.4) | 479 (100.0) |

주 :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 중 '주된 구직경로'에 대한 복수 응답 중 첫 번째 응답 기준임.

() 안은 연도별 각 구직경로의 구성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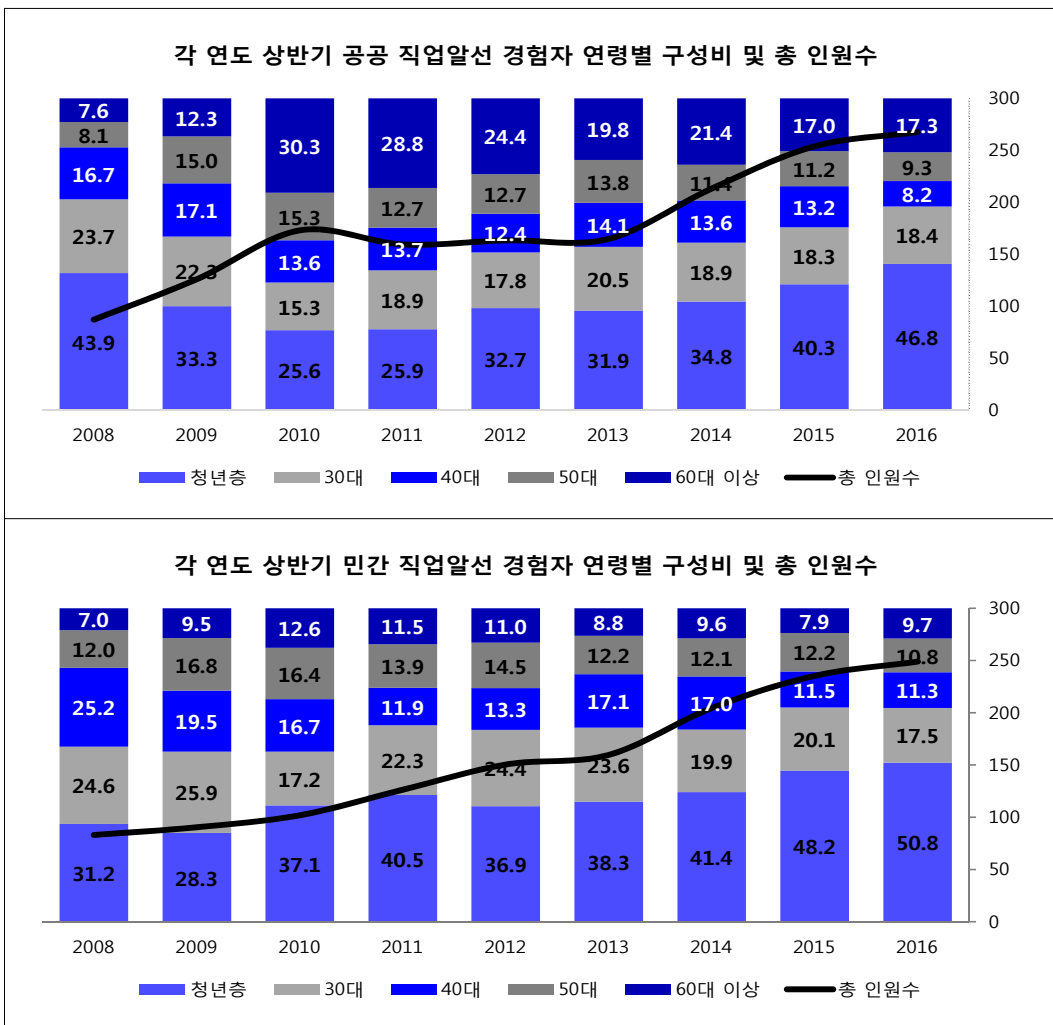
- 한편 청년 실업자 내에서는 특정 집단별로 상이한 구직경로 현황이 관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학력수준과 전직유무에 따라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구직경로로 선택하는 비중이 차이가 나타남(그림 2, 3 참조).
 -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청년층이 초대졸 이하 청년층에 비해 직업알선기관을 구직 경로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.
 - 특히 대졸 이상 청년층의 경우, 2014년 상반기 이후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대졸 실업률 또한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.

4) 공공 직업알선기관에는 중앙노동관서, 워크넷(Work-Net),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가 포함됨.

5) 민간 직업알선기관이란 온·오프라인상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함.

(그림 1) 각 연도 상반기 공공·민간 직업알선 경험자 연령별 구성비 및 총 인원 수

(단위: %, 천 명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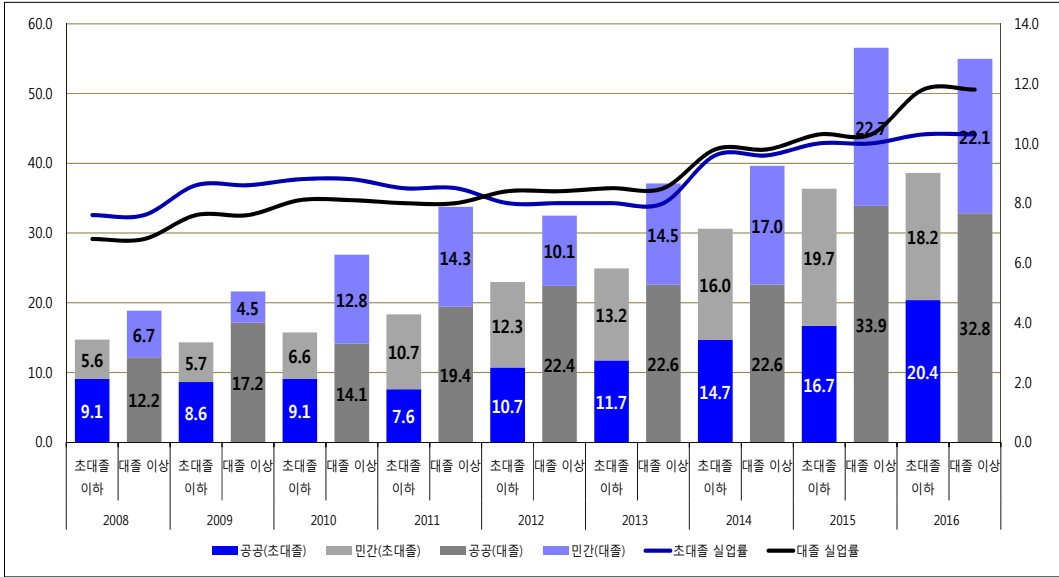
- 전직유무별로는 신규실업자⁶⁾가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구직 경로로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전직실업자⁷⁾의 경우 공공·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비중이 각각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.

6) 과거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없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실업자.

7) 과거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실업자.

[그림 2] 각 연도 상반기 청년(15~29세) 실업자 학력별 구직경로 중 직업알선 비중(좌축) 및 실업률(우축)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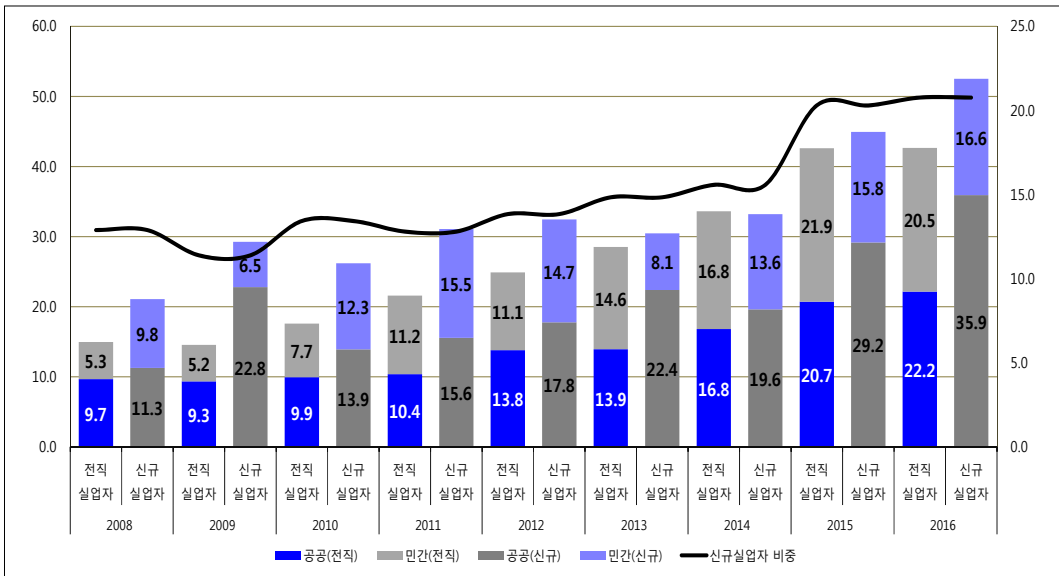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, 각 연도.

[그림 3] 각 연도 상반기 청년(15~29세) 실업자 전직유무별 구직경로 중 직업알선 비중(좌축) 및 신규실업자 비중(우축) 현황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, 각 연도.

- 공공·민간 직업알선이 청년 실업자의 주요한 구직경로로 관찰되는 가운데, 해당 주제에 대한 분석은 청년들의 취업 연결고리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. **KLI**

(김종욱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월간 노동리뷰

2016년 11월호